

소련의 제 2 경제*

한 종 만

I. 머리말

자본주의의 '제 2경제(second economy)'는 좁은 의미에서 지하경제라고 불러주는데 일반적으로 탈세를 수반하는 경제활동으로 불법이나 비공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국민총생산에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제 2경제는 부정적인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중립적 혹은 긍정적인 경제·사회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차이에 따라 제 2경제는 '그림자'(shadow), '지하(underground) 경제', '마피아 경제',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범죄', '계측되지 않는(unmeasured)경제', '병행(parallel) 경제', '비공식(unofficial)경제', '역경제(counter economy)', '숨겨진(hidden)경제', '가상(fictitious)경제', '불법 경제(illegal economy)' 등 여러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다양한 명칭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제 2경제라고 규정하는 범위와 개념 그리고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며 그 기준 또한 다양하다는 것이다.

제 2경제는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주로 조세법에 의한 탈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제 2경제가 존재한다. 양체제는 체제고유적인 제 2경제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1989년 이후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이행기체제에서도 체제내재적인 제 2경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제 2경제는 경제주체의 행태에 따라 양 체제간의 일반적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체제초월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소련의 제 2경제 영역은 경제전체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통제하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경제주체에게 크며, 국가의 경제운영에 미치는 효과 또한 잠재적으로 크다. 계획경제체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allocation)을 위해 근본적으로 생산분배 소비의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소련 경제체제는 복합적 원인으로 전 경제활동을 특히, 소비활동을 관리하지 못했다. 즉, 한편으로는 중앙 계획당국의 통제가 완전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경제개혁 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정에서 '시장적 요소 혹은 관계(market element, market relations)'의 강조, 경제주체의 자율성 확대로 제 2경제는 소련에서 부상해왔다. 또한,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인 상품·화폐관계 소멸과 계급소멸, 즉, 경제주체 간에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경제주체간에 참여한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존재(도시·농촌관계, 성별관계, 육체·정신노동자관계, 기업간 관계, 국가와 기업관계, 지역관계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각 공화국 간의 관계 등)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원배분과 생산활동 그리고 소비활동이 존재해왔다.

소련경제는 제 1경제와 제 2경제가 병존하면서 두 경제는 상호보완적 측면과 상호갈등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 2경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미시 및 거시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2경제의 분석은 소련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체제의 비능률성 그리고 체제개혁의 필요성과 체제전복 및 체제이행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제 2경제와 경제개혁간의 상관함수를 분석하고, 제 2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권장하고 측면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물론 여러 경제정책을 연구할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상이한 제 2경제의 개념과 정의의 파악을 체제내재적 및 체제초월적으로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있다. 특히 구소련의 제 2경제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체제론적 관점에서 제 2경제를 정의하려고 한다. 그 다음으로 구소련에서 제 2경제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추정치를 다루었다. 제 2경제의 원인 분석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고유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루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소련의 실제 소멸 이후 새로 탄생한 '독립국가연합'과 각 독립국가의 경제분석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2경제의 효과 분석은 주로 제 1경제와 제 2경제의 상관함수를 다루며, 특히 경제개혁 혹은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제 2경제로 인한 자원배분 (allocation)문제는 물론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논하면서, 제 2경제에 대한 국민경제적 관점과 개별경제의 시각에서 미시 및 거시 분석을 시도한다. 끝으로, 제 2경제의 방지책에 대해서는 체제정책, 구조정책과 과정정책 관점에서 긍정적인 제 2경제는 더욱 활성화시키고 부정적 제 2경제는 행정적 조치로써 금지 및 허가사키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제 2경제의 개념과 정의

소련에서는 제 2경제를 'na levo(러시아어로 왼쪽으로의 의미)'라고 칭하는

데 합법성 저편에서 활동하는 경제행위를 의미한다. 소련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는 합법성에 관해 분명히 정의된 법규와 기타의 규칙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역이 존재한다.¹⁾ 제 2경제는 모든 경제체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제 2경제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제 2경제의 정의는 보통 제 1경제 혹은 공식경제의 대칭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련에서 제 2경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는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글라스노스트(공개·개방)정책과 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졌다. 그전까지 제 2경제의 연구는 체제비판적 이유로 금기중의 하나였다. 단지 진보적 지식인층에 의해 간헐적으로 소련이 안고 있는 제 2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준에서만 비판이 이루어졌다.²⁾ 그러나 서방학자들 사이에서는 197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체제론적 관점에서 제 2경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 주로 소련체제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1977년 첫번째로 소련의 제 2경제를 광범위하게 분석한 그로스만(G. Grossman)은 제 2경제의 정의를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국가통제의 밖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비적법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 2경제를 개인의 소득을 위해 의식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사적 효용에 유익하거나 혹은 실정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모든 생산활동과 분배활동 그리고 소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³⁾ 한편, 법경제학자 펠트부르게(F. J. M. Feldbrugge)는 제 2경제를 국가의 통제를 피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따라서 그는 제 2경제를 '그림자경제'라고 칭하고 있다.⁴⁾

결국, 그로스만과 펠트부르게의 제 2경제의 정의는 '불법경제'의 개념에 가까우며 주로 법률적·제도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 2경제의 정의는 체제비교론적 분석과 소련경제의 역동성에서 경제체제변화, 경제과정변화, 경제구조변화 분석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프너(F. Haffner)는 소련경제체제에서도 '시장적 요소 혹은 관계' 들이 소

1) H. E. Gramatzki, "Schattenwirtschaft", in: *Länderbericht Sowjetunion*, ed. by H. G. Bütow, 2nd Edition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88), p.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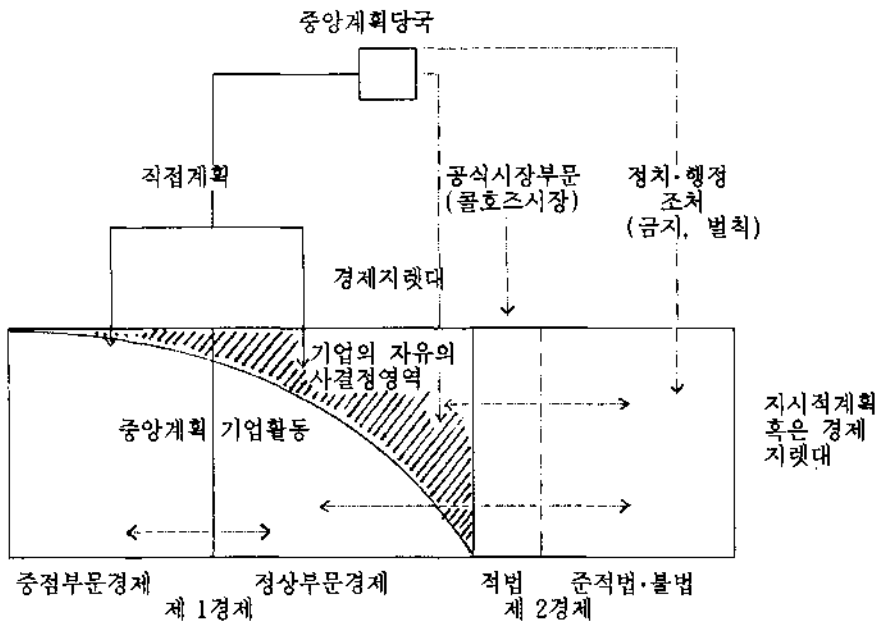
2) 소련에서 제 2경제는 중앙계획경제체제의 근본적 결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Т. И. Чаплав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роведен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ЕКО*, 1980, no. 3, s. 30.

3) G.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No. 5, 1977, p. 25.

4) F. J. M. Feldbrugge, "Government and Shadow Economy in the Soviet Union", *Soviet Studies*, Vol. 36, No. 4, 1984, pp. 528-529.

런경제의 합법적이고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로스만의 정의는 이것들을 제 2경제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는 제 2경제를 '체제론적 통제의 시금석을 통한 적법성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프너는 소련경제의 주요 구성부문을 <표1>과 같이 제 1경제부문에는 중점계획부문 (주로 중공업, 군수산업, 항공·우주산업)과 정상계획부문 (경공업, 농업, 유통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 2경제는 비계획부문의 적법비계획부문 (do-it-yourself, 콜호즈시장, 사적소택지 이용 등)과 비적법비계획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

<표 1> 제 1경제 - 제 2경제



* 출처: F. Haffner, "Ist die Schattenwirtschaft ein Reformansatz? Das Verhältnis der Wirtschaftsreformen in Osteuropa zur Schattenwirtschaft", Vierteljahre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DIW), No. 4, 1985, p. 180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기업 혹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의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즉, 중앙계획당국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렙틴(G. Leptin)은 제 2경제의 개념과 정의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적법성, 도덕성, 통계파악, 실적관계 그리고 체제정당성을 지적하고 있다.⁵⁾ 이런 정의는 양체제의 비교분석에 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제 2경제의 파급효과와 체제개혁과 경제정책에 좋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러나 통계파악에서 국민소득, 즉 물질생산(Material Product System)⁶⁾ 혹은 국민총생산(GNP)에 파악되지 않는 부문에 대한 지적이 미비하다. 국민소득과 관련한 제 2경제의 정의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 비교와 제 2경제의 규모와 범위를 분석하는 틀을 분명히 제공하지만 사회주의체제내에서는 화폐제도가 제 2차적 기능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⁷⁾ 왜냐하면, 소련화폐가 국민소득의 계산에서 '총계(aggregation)'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련경제체제는 원칙적으로 실물경제체제⁸⁾이므로 화폐는 실물경제체제를 단지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소련에서 국내화폐는 현금화폐와 비현금화폐로 엄격히 분류되어 있는데, 상호간의 교환이 불가능하며 또한 국제화폐와 국내화폐간의 교환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총합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 단지 실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상품과 서비스의 이질성으로 인해 상당한 애로가 존재한다.⁹⁾

5) G. Leptin, "Terminologische Anmerkungen zum Begriff der Schattenwirtschaft", in: *Beiträge zum Problem der Schattenwirtschaft*, ed. by G. Hedtkamp (Berlin: Duncker & Humblot, 1983), pp. 11-12.

6) 물질생산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국민총생산개념으로 서방의 개념과 차이점이 있다. 물질생산 개념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근거하여 생산적영역에 참가한 부분만 국민소득에 포함시킨다. 그러므로 제 3차산업의 대부분의 공적 서비스는 국민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7) 국민소득과 관련한 제 2경제의 이론적 분석의 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바람. D. Cassel, "Funktionen der Schattenwirtschaft im Koordinationsmechanismus von Markt und Planwirtschaften", *ORDO*, Vol. 37, No. 1, 1986, p. 78.

8) 소련계획경제체제는 세계 사회·경제발전사에 역행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역사주의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 사회·경제발전사는 실물경제에서 화폐경제체제로 발전한 다음 신용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예견하고 있는데 소련사회는 제정러시아때 화폐경제체제에서 다시금 실물경제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역사의 역행을 보여주고 있다. C. Brinkmann, "Historische Schule", in: *Handwörterbuch der Sozialwissenschaft*, Vol. 5, (Stuttgart, Tübingen and Göttingen: Gustav Fischer, J. C. B. Mohr, Vandenhoeck & Ruprecht, 1956), pp. 121-127.

9) 그러므로 서구의 화폐이론을 소련체제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바람. J. M. Han and R. Ostermeier, "Monetäre Disproportionen in sozialistischen

제 1경제와 제 2경제의 활동은 분명한 차이를 지니지만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제 1경제는 제 2경제의 은신처로 가능하며 상호간에 서로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제 2경제활동의 대부분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 1경제의 공생적 혹은 기생적 관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하프너와 뱀틴의 정의에 입각해서 소련의 제 2경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제 2경제는 합법적이 아니며, 국민경제 산출표에 파악되지 않는 '채제거부적' 경제를 의미한다.

III. 제 2경제의 형태와 추정치

소련의 제 2경제 연구는 주로 서방세계에서 소련체제의 비판과 자본주의체제 우위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왔다. 소련의 폐쇄성으로 인해 제 2경제의 규모와 범위는 단지 방병학자의 진술과 망명 소련인의 인터뷰와 목격자를 통해 인식되어 왔다.

1970년 초기에 소련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서방기자 스미스(H. Smith)는 자신의 책에서 제 2경제가 소련체제의 아주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제 2경제의 범위는 "적은 뇌물에서부터 암시장거래, 대단위적으로 국영재산의 전도, 사적 제조기업 그리고 마피아 조직단체, 일부 마피아는 고위당관료와 연계된 마피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¹⁰고 적고 있다.

소련경제에서 제 1경제와 제 2경제의 구분은 자본주의경제체제 보다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망명경제학자 카첸넨보이겐(A. Katsenelinboigen)은 소련경제에서 적법성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색깔을 부여하여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적법적 시장의 적색, 핑크색 그리고 백색시장에서부터 준적법적 시장인 회색시장과 불법적 시장(암시장)의 갈색 그리고 검은색 시장까지 구분하고 있다.¹¹ 이러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제 2경제의 모든 형태는 상호간 서로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먼저 밝혀둔다.

소련의 백색시장(white market)의 대표적인 예는 농업토지의 사적 이용을 통해 과일과 야채 그리고 일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유 집단농장시장

Volkswirtschaften und die westliche Geldtheorie", *Osteuropa- Wirtschaft*, Vol. 34, No. 2, 1989, pp. 79-92.

10) H. Smith, *Die Russen* (Bern and München: Knauer, 1976), p. 123

11) A. Katsenelinboigen, "Colored Markets in the Soviet Union", *Soviet Studies*, Vol. 29, No. 1, 1977, pp. 62-85.

(Kolkhos-market)이다. 집단농장시장은 중앙계획당국이 농산물 부족의 제거와 농민들의 인센티브 향상을 위해 계획을 포기하면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시장이다.¹²⁾ 그러므로, 콜호즈시장의 가격은 일반 국영상점의 상품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물론 국영상점의 상품보다 품질이 양호하며 구매시 장사진(오래줄서기)의 애로를 피할 수 있다. 사적소택지의 사용자는 주로 수익성이 높은 농산물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적소택지는 전체 경작지면적의 3%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소련 총생산의 18%를 차지하고 있다.¹³⁾

1980년에 소련의 총농산물중에서 사적으로 생산된 비율은 개별농산물에서 다음과 같다: 곡물은 총생산량의 1.4%, 감자는 64.1%, 야채는 32.7%, 과일은 42.1%, 소고기는 18.9%, 돼지고기는 40.3%, 양·염소고기는 40.0%, 가금고기는 37.6%, 우유는 29.6%, 계란은 32.1% 그리고 양모는 20.6%를 차지하고 있다.¹⁴⁾

백색시장인 사적소택지와 콜호즈시장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이지만 국가가 허가한 토지면적과 가축소유의 제한선을 준법법 혹은 불법적으로 초과하며 또한 사회부문에 속한 농기계와 수송수단 그리고 농업원자재를 투입하여 그들의 사적생산과 사적 유통에 사용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적 경제활동은 부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은 주업에 해당하는 사회부문에 투입해야 하는 노동을 그들이 더욱 애착을 느끼고 있는 사적경제활동에 투입시키므로써 주업과 부업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 위에서 보듯이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고 있다.

회색시장(grey market)의 경제활동은 불법적이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고 있어 형법에 따라 소추되지 않는다. 회색시장을 형성하는 영역은 주로 국민들의 심각한 상품·서비스부족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국영기업과 조합기업에서는 톨카치(tolkach), 즉 '중개자'의 활동으로 계획경제의 결손을 기업내 자체적으로 극복하는 체제순용적 기능을 갖고 있다. 톨카치는 계획의 불완전성에서 나타나는 목표량을 기업 자체적으로 기타 기업 혹은 조합간의 비공식 조정(coordination)을 통해 실현한다. 소련 국가물자조달위원회(Gossnab)의 조사에 의하면, 1980년대초에 소련의 공업부 산하에 있는 기업들은 철강품의 20% 그리고 시멘트의 12%를 이러한 톨카치의 활동으로 조달하였다. 또 이 조사에 의하면 85개의 기업에서 16개월동안 68,000번의 물자공급이 톨카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기업당 800번이나 비공식적으로 물자를 공급받았다.

12) 소련의 가격체계는 중앙계획당국, 즉 국가가격위원회에 의해 고시된 고정 가격인 반면에 자유시장의 가격형성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13)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СССР (Moskva, 1990), s. 123.

14) U. E. Cichy and H.-J. Paffenholz, "Schattenwirtschaft in sozialistischen Planwirtschaften", *Verbraucherpolitische Heft*, No. 3, 1986, p. 100.

<표 2> 소련에서 색깔시장의 주요 특징

시 장 종 류	상품판매의 적법성	상품출처의 적법성	판매방법의 적법성	상 품 소지자	상 품 수취자	전형적 판매 억제
I 적법적 시장						
1. 붉은 red	적법	적법	적법	국영상점 메니저	국민	보너스
2. 핑크 pink	적법	적법	적법	국민	국민	보너스
3. 하얀 white	적법	적법	적법	국민	국민	시장조세
a) 내구재	적법	적법	적법	집단농장	국민	시장조세
b) 식료품	적법	적법	적법	구성원		
II 준적법 시장						
4. 회색 grey	적법	준적법	준적법	국민	국민	벌금
a) 소비재	적법	준적법	준적법	국영상점 메니저	국영상점 메니저	징계
b) 생산재	적법	준적법	준적법			
III 불법 시장						
5. 갈색 brown						
a) 소비재						
① 붉은 시장에 서 부족되는	적법	준적법	준적법	국영상점 직원	국민	해고, 징계
② 사적으로 수입 안되는	적법	준적법	준적법	해외 방문자	국민	해외여행 금지
b) 생산재	적법	불법	불법	국영 노동자	집단농장 책임자	강한 징계
6. 검은 black						
a) 적법한 상품						
① 적은 공급내 에서 적법적 회득	적법	준적법	불법	투기자	국민	형사기소
② 제한된 판 내에서 회 득	적법	적법	불법	투기자	국민	형사기소
③ 불법적 회 득	적법	불법	불법	횡령자	국민	형사기소
b) 준적법 상품	준적법 불법	불법	불법	경화 및 해외외국 투기자 매춘		

* 출처: A. Katseneli boigen, "Colured Mar ets in the Soviet Union", Soviet Studies, Vol. 29, N . 1, 1977, p. 63

톨카치는 보통 국영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종종 자유직업가로서 기업간의 수평적 관계에 의해서 물자공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자 기능에 대해 에릭슨(R. E. Ericson)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제 1경제에서 파악되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론적 그리고 경제질서론적 관점에서 보면, 자원배분의 '이중배분'체제로 인해 갈등이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이 따르게 된다. 특히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주장하는 독일의 '프라이부르그 학파(Freiburger-Schule)'는 모든 경제체제에서 수미일관된 제도와 정책이 체제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예를 들면,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시장메카니즘에 입각한 수미일관된 정책만이 이 체제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계획메카니즘에 입각한 수미일관된 정책만이 계획체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제 3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배분의 조정메카니즘인 계획과 시장의 조화는 결국 체제의 비능률만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 학파는 주어진 체제하에서 체제지향적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소련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유사한 제 2경제는 결국 체제역행적 혹은 체제파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부문의 생산수단을 이용해 불법적인 사적 제조활동(krypto)을 하는 국영기업과 조합기업이 존재한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국영기업장 혹은 조합기업장이나 혹은 직접적으로 생산, 판매,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그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이루어지고 있다.¹⁷⁾ 이러한 제 2경제는 한편으로는 공식부문의 제품과 병행해서 생산되고 있다. 다른 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쪽으로 약간 변형해서 제품을 비공식적으로 판매 혹은 다른 물품과 교환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부문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내의 재산을 이용하여 은밀히 물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용적과 판매망과 관련하여 상당한 부패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런 불법생산은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부문에서 우즈베크공화국의 불법 면화재배가 대표적 예이다.

사회주의 기업밖에서 일어나는 제 2경제의 활동으로, 이 영역에서 일하는 '방과후 노동자(sabasniki)'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과 관련하여 비공식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를 받고 있다. 암노동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요부문은 수공업, 유행, 의료봉사, 과외수업, 주택수선, 자동차수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노동의 원인은 후에 언급하겠지만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 품질저하, 장사진, 조악한 서비스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 영역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제 2유통'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수입이 좋은 자동차수

15) R. E. Ericson, "The 'Second Economy' and Resource Allocation under Central Planning",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8, No. 1, 1984, p. 4.

16) W. Eucken, *Die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8th Edition (Berlin, 1965).

17) G. Grossman, "Die 'zweite Wirtschaft' und die sowjetische Wirtschaftsplanung",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No. 6, Köln 1984, pp. 1-38.

리 압노동자로부터 대학입학허가를 준비하는 아들의 물리선생에게로 다시 화폐가 유통된다.¹⁸⁾ 많은 노동자들은 이러한 부수입에 익숙하며 결코 이러한 부수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회색시장의 규모는 대략 140-160억 루블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자동차수선, 주택건설 혹은 주택개조, 기술장비수선, 이발소, 혼인식 및 장례식 등이 약 50-60억 루블에 달한다.¹⁹⁾ 여가시설과 사적 휴가지 숙박시설이 35억 루블에 달한다. 또한 소련의 의료서비스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25억 루블이 지불된다. 왜냐하면, 특별 사례금을 통해 의료환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련의 의사와 간호사는 높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급여가 적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심지어 공적 병원시설의 기품을 집으로 가져와 사적 의료활동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액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론대상자의 1/2이상이 진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암시장(black market)의 영역에는 생산시장에서 암생산과 노동시장에서 암노동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암거래가 존재한다. 포르노 필름 및 잡지, 매춘, 마약, 알코올 등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상당한 양이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되고 있다. 특히 소련에서 소비되는 알코올의 1/3은 사적으로 제조되는 밀주(samogon)라고 트레몰(V. G. Tremml)은 지적하고 있다.²¹⁾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강력한 반알코올정책에 의해 소련의 공식 알코올소비량은 급격히 하락했지만 제 2경제를 통해 알코올 소비가 충당되고 있다. 1987년 소련내무부 추정치에 의하면 제 2경제에서 약 18억 리터가 생산되며 그 액수는 대략 180억 루블로 추정되고 있다.²²⁾

1980년 후반부터 글라스노스트 정책으로 인해 소련의 마약 현황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 발표에 의하면 14만명의 약물중독자가 보건성에 의해 격리 수용되어 있으며, 소련 전체에 약 130-150만명의 약물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청소년, 대학생, 자유직업가, 윤락녀 그리고 범죄조직단체구성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 추세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마약구입은 대부분 암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대한 이윤을 낳을 수 있는 이 사업에 많은 범죄단체와 '조직된 범죄단체(Mafia)'가 관여하고 있다.²³⁾ 1988년 현재 약 200개의 마피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18) H. E. Gramatzki, "Schattenwirtschaft...", p. 428.

19) *Trud*, August 22, 1988.

20) N. Schefow, "Schattenwirtschaft", *Sowjetunion Heute*, No. 7, 1990, p. 11.

21) V. G. Tremml,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in the USSR: A Statistical Study", *Journal of Studies of Alcohol*, Vol. 36, No. 3, 1975, p. 285.

22) N. Schefow, "Schattenwirtschaft...", p. 11.

고 있으며 KGB, 내무부, 군의 축소등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들이 가담하여 중무장을 갖춘 마피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²⁴⁾

국가재산의 횡령과 절도도 최근의 범질서 해이로 계속 증가되고 있다. 특히 농업부분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산물 보관과정에서 야채보관소에서 약 1-13%가 유실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원자재와 제품의 수송과정에서 빈번한 도난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소련에서는 약 1,500억 루블에 상당하는 미완성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 주원인은 건축자재, 즉, 시멘트, 벽돌, 철 그리고 기타 건축자재가 일반국민의 주택보수작업과 주택건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심각한 주택사정은 이런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1972년에 5억 리터에 달하는 가솔린이 제 2경제에서 판매되었으며 모피시장의 80% 그리고 수산물판매의 25%가 제 2경제의 활동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⁶⁾

조합운동의 움직임 이후 소련에서 제 2경제는 성숙단계를 지나 '도약'(take-off)단계로 진입한 듯하다. 매점·매석을 통해 상거래의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상당한 이득을 보는 자는 물론 1980년대 말부터 더욱 더 소식된 범죄단체인 마피아로 발전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경제개혁 이후 소유권의 다양화 정책과 협동조합(cooperative)의 출현으로 유통마피아는 더욱 활성화되어 소련 특유의 2중 가격체제를 이용하고 있다. 국영상점의 저렴한 상품을 매점·매석하여 자유시장과 협업기업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일반시민들도 가격자유화의 예상 혹은 상품부족의 불안 등으로 인해 더욱 더 필요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일반시민과 마피아의 사재기현상으로 인해 상품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고기를 국영상점에서 구입해서 조합은 약 10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조합은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처분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가능한 한 불법적으로 자재를 조달하고 있다. 조합기업의 1/2이상은 원자재를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영기업과 조합기업이 서로 협력체제를 갖추어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영기업의 모든 거래는 '장부상 화폐'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들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폐'를 보유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영기업 직원들은 기업내 원자재를 조합에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얻고있다. 모스크바의 새로운 암시장에서는 현금화폐와 비현금화폐간의 교환율이

23) R. Ahlberg, "Drogensucht und Kriminalität in der Sowjetunion" *Osteuropa, Zeitschrift für Gegenwartsfragen*, Vol. 40, No. 4, 1990, p. 323.

24) A. Gurlow, "Mafia", *Sowjetunion Heute*, No. 12, 1988, pp. 40-41.

25) N. Schefow, "Schattenwirtschaft...", p. 11.

26) P. R. Gregory and R. 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4th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1990), p. 275.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 한종만·우강영·김성형 옮김 (서울: 연린책들, 1992), 363쪽.

1:3으로 교환되고 있다고 한다.²⁷⁾ 또한 경화암시장²⁸⁾은 주로 해외여행자와 이루어지며 소련의 모든 도시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제 2경제로 인해 소련의 화폐제도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소련내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소련의 지도층인 108,500명의 노멘클라투라들이 직접·간접으로 제 2경제에 참여 혹은 혁명의 중개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²⁹⁾ 경직된 관료제와 관련하여 제 2경제의 상당한 뇌물이 부패한 고급공무원들에게 가고 있다. 특히 우즈베크공화국의 불법 면화재배는 고위공무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련 언론에 의하면 경제마피아 보스는 카드놀이로 최고 50만 루블까지 걸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법기관과 검찰기관의 고위당국자는 마피아로부터 30만 루블에서 100만 루블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⁰⁾

한편, 제 1경제의 활동을 책임지는 국가공무원이 상품부족을 더욱 조장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상품부족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제 2경제를 통한 수입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5월 15일 '블로소득의 퇴치강화령'을 선포하면서 벌금과 기타 벌칙을 강화시켜 이러한 제 2경제활동에 제재를 가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조치는 큰 성공이 없었다.

제 2경제의 추정치는 제 2경제 활동이 주로 현금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화폐량수요 분석 혹은 한계저축소비성향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소련은 1937년 이후 화폐량을 발표하지 않는다.³¹⁾ 그러므로 제 2경제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27) N. Schefow, "Schattenwirtschaft...", pp. 11-12.

28) 소련의 경화암시장과 상품부족현상의 상관함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바람, J. M. Han, *Inflation in sozialistischen Planwirtschaften*, (ed.) by E. Böventer and P. Kuhbier, *Volkswirtschaftliche Forschung und Entwicklung*, Vol. 61 (München: V. Florentz, 1990), pp. 59-63.

29) 소련에서는 심지어 노멘클라투라의 관직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노멘클라투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바람. 韓鍾萬, 「노멘클라투라와 인텔리겐차 - 集團正體性的成立, 存續, 葛藤 및 解體」, 蘇聯의 正體性 危機, 韓國슬라브學會 6次 學術會議, 1991.11.

30) *Literaturnaia gazeta*, July 21, 1988.

31) G. Grossman, "Notes on the Illegal Private Economy and Corruption", in: *Soviet Economy in a Time of Change*, (ed.) by Joint Economic Committee Vol. 1,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1979), p. 852 and M. Carter, "Issues in the Hidden Economy", *Economic Record*, Vol. 60, No. 170, 1984, p. 214. 소련의 화폐량의 공표는 고르바초프 말기에 이루어졌다.

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주의체제에서 GNP 계산은 자본주의체제와 상이하며 또한 비합법적 활동을 추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계산이론 그리고 연구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소련의 제2경제의 추정치들은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면 1986년에 국가계획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불로소득의 추정치를 약 51억 루블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은 불로소득을 100억 루블로 추정하고 있다. 1987년 국가계획위원회는 제2경제의 연간판매량을 900억 루블로 발표하였으며, 1988년에 제2경제로 인한 비생산비용과 손실은 약 400억 루블로 추정하였다.³²⁾ 서방의 추정치에 의하면 그것 보다도 훨씬 많은 1,000-1,500억 루블에 달한다. 이 액수는 소련 총국민소득의 25%에 해당되며 소련의 국내부채를 제거시킬 수 있는 양이다. 소련의 정보가 더욱 공개되면서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구상안이 본격적으로 제시되면서 제2경제의 액수는 더욱 크게 발표되고 있다. 1990년 <야블린스키·샤탈린 500일 경제개혁안>을 위해 발표된 소련 국가계획위원회(Gosplan)의 추정치에 따르면 제2경제는 사회생산가치의 약 36-40%, 즉 1989년에 약 6,000억 루블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소련내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품질이 조악한 생산물가치는 1,100억 루블에 상당하며 심지어 왜곡된 산출보고량은 130-150억 루블에 달한다. 국유재산의 절도로 인한 손실액은 약 52억 루블이라고 추정하고 있다.³³⁾

여론조사 대상자의 84% 이상이 실제 국가에서 정한 가격 이상으로 부족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번 이상 제2경제에서 물품을 구입했다고 한다. 특히 신발과 의복에서 50% 이상의 대상자는 불법적으로 인상된 가격을 지불했다고 한다.³⁴⁾

소련의 법률기관은 매년 24-28만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범죄를 적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손실은 2-2.5억 루블로 평가되고 있다. 그중 81,228건의 국가 및 공공재산의 횡령 및 절도 그리고 국가재산의 잘못 이용, 45,140건의 투기, 4,292건의 뇌물수취, 1,214건의 해외경화의 불법적 거래 등이 지적되고 있다.³⁵⁾ 그러나 실제 발생한 범죄수는 위에서 발표한 보고와는 달리 방산의 일각

32) *Moskovskie novosti*, March 26, 1989.

33) G. Yablinsky; B. Fedorov; S. Shatalin and etc., '500 Days Program' Transition to the Market (Moscow 1990),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500일 경제개혁안」 한종만 옮김 (서울: 열린책들, 1991), 128-130쪽.

34) Г. Беликова и А. Сохин, "чёрный рынок", *Огонёк*, 1987, no. 36, s. 7.

35) D. Holtbrügge, "Ursachen, Ausmaße und Ausprägungen der Schattenwirtschaft in der UdSSR", *Osteuropa, Zeitschrift für Gegenwartsfragen des Ostens*, Vol. 41, No. 1, 1991, p. 54.

이라는 것이다.

경제범죄에 가담하는 자는 대략 25-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총범죄 중에서 7-12%는 소위 '마피아'라고 불리는 집단적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경제범죄와 다른 범죄들이 연결되는 경향이 농후하며 소련의 전지역에서 점진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산업간 및 지역간에 그러한 특징이 존재하고 있다. 소련의 남부지역(코카서스 3개 공화국과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에서는 국민경제에서 부족되는 상품, 예를 들면 야채, 과일, 꽃, 불법상품인 마약의 원료로서 양귀비와 대마 등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며 또한 이 지역의 인구과잉으로 인한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제 2경제가 북부지역(발트 3개 공화국과 슬라브 3개 공화국)보다 더욱 왕성하게 발달되어 있다.³⁶⁾

망명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특히 그루지야에서 불법적으로 제조되는 사적 생산은 이 공화국의 총생산에 거의 40%에 달한다. 제 2경제에서 이러한 '남북격차'는 남부지역에 역사·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쌓여 온 상거래의 전통과 국민성 그리고 '유동적' 지역서기장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코카서스인들 중에 특히 아르메니아인들이 상술에 능수능란하다는 것은 미국에 이민한 그들로부터 아르메니아 기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V. 제 2경제의 생성원인

제 2경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제 2경제의 주요 생성원인은 경제주체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데서 기인한다. 자본주의체제의 '복지국가', '국가간섭', '조세국가'와 사회주의체제의 '계획국가'는 각 경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별경제주체는 자유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경제주체는 제한된 공식경제의 행동반경 속에서 더욱 더 제 2경제로 편입되고 있다.

소련에서 제 2경제가 존재하는 주요 원인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로 중앙계획당국이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명령 혹은 행정적인 방법으로 관리 및 통제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원칙적으로 사적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면 될수록 제 2경제의 생성잠재력은 증가된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체제에서도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체제초월적 제 2경제의 원인을 제공한다. 국가는 법률제도를 통해 경제주체의 활동범위를 금지 혹은 제한한다. 국가의 역할을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국민들이 수용하며 또한 국가간섭의 증가로 인한 경제주체의 방어전략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이루

36) H. E. Gramatzki, "Schattenwirtschaft...", p. 431.

어지는가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또는 각 경우마다 상이하다. 역사적 혹은 경험적 시각에서 보면 경제주체가 끊임없이 그리고 상당히 국가의 간섭에 대해 저항하며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

소련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체제로 이루어졌다.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관리는 노멘클라투라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들의 경제력과 정치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관리되는 것보다 그들 자신의 이권과 특권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거대한 행정·관료체제에서 그들의 정치·경제력은 무한정에 가깝다. 노멘클라투라 체제내에서 관직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소련 학술원회원이었던 보슬렌스키(M. S. Voslensky)라는 망명학자는 뇌물을 수수하는 노멘클라투라는 결코 처벌받지 않는 불문율이 있으며, 단지 처벌되는 노멘클라투라는 그들 사이의 권력투쟁에서 소외된 자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³⁸⁾

코나이(J. Kornai)는 사회주의계획경제체를 여러가지 이유로 소비재와 내구재의 만성적 '부족경제' 체제라고 칭하고 있다.³⁹⁾ 이러한 상품부족을 제거하기 위해 소련의 경제주체들은 첫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정보입수, 줄서기, 물자도착 시간 그리고 수송 등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상품불입, 경화교환, 뇌물 그리고 암시장 등으로 인해 많은 '화폐'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친절, 호의, 허가 혹은 관계 등을 위해 많은 '말'을 필요로 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소련 국민들이 많은 시간과 화폐 그리고 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소련의 제 1경제, 즉 계획경제부문에서 발생한 적정한 자원배분(allocation)의 불완전성과 조정(coordination)의 실패로 인해 개별 경제주체 스스로 상품부족을 제거하기 위해 '자체공급경제'(예를 들면 do-it-yourself)⁴¹⁾와 준적법·불법적 메카니즘을 통해

37) E. Cichy and H. J. Paffenholz, "Schattenwirtschaft...", p. 91.

38) M. S. Voslensky, "Sowjetunion: Die korrupte Nomenklatura", in: *Korruption, Zur Soziologie nicht immer abweichenden Verhaltens*, (ed.) by C. Fleck and H. Kuzmics (Königstein/Ts.: Athenäum, 1985), pp. 167-168.

39) J. Kornai, *Economics of Shortage*, Vol. A and Vol. B. (Amsterdam: Northland Publishing Company, 1980). 소련체제의 상품부족의 상세한 원인은 다음의 책 참조 바람, J. M. Han: *Inflation...*, pp. 81-247.

40) D. Cassel, "Funktionen der Schattenwirtschaft im Koordination- smechanismus von Markt und Planwirtschaften", *ORDO*, Vol. 37, No.1, 1986, p. 79.

41) do-it-yourself의 현상은 체제초월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주로 인건비의 상승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가계주체가 스스로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상품부족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구입못해 스스로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소련에서는 서방에서 무료로 주는 의복 광고물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왜냐하면 소련 소비

이를 극복하려는 자구행위 혹은 정당방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소련에서 자원배분은 시장의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 관료가 자원배분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물자공급, 상당한 노동력배분, 주택배분, 건축허가, 해외여행허가, 자동차면허증 등 모든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통제관리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체제와 마찬가지로 경제행정관료들에 의한 뇌물과 부정 및 부패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련 경제체제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가격이라는 성격을 띠므로 제 2경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코시킨 경제개혁 이후 '신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어 기업에서는 값싼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비싼 제품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는 옛날 상품을 상표만 바꾸어 신상품이라고 하여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제 1경제의 행정가격이 실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때, 모든 소련의 경제주체는 제 2경제활동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적법적 시장'(국가가 묵인 혹은 승인)을 통해 예를 들면 소규모 수공업자, 유통인, 사적 소재지 사용자 등이 대표적 경우—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적 혹은 지하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 소련사회는 공식적으로 화폐가 상품 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 2경제에서는 적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한 자유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항상 과잉수요와 과소공급상태에 있는 소련사회에서 제 2경제에서의 가격은 상당히 높다. 또한 제 2경제의 유형에 따라 위험수당 X 가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 2경제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련경제의 화폐과잉에서 기인한다.⁴²⁾ 1971년부터 1985년까지 소련의 화폐량은 약 3.1배나 상승한 반면에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은 겨우 2배밖에 오르지 않았다. 또한 1980년 후반기에도 화폐량의 성장은 빠른 속도로 계속됐다. 1987년에 약 60억 루블, 1988년에 120억 루블, 1989년에 180억 루블로 상승했지만 1986년 소매업에 대한 상품공급은 오히려 15% 감소됐다.⁴³⁾ 이러한 화폐과잉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은 무한정에 가까운 구매력을 갖고있다. 1989년 기준으로 소비자의

지가 유행과 모드에 맞는 물품을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통일시(예를 들면 환자와 의사)는 새로운 권력이동의 유형이라고 보고 있다. 앨빈 토플러, 「권력이동」(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0), 29-31쪽.

42) 사회주의체제에서 상품과 화폐의 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잠재력에 대한 지표로서 제 2경제에 대한 분석에 대해 다음의 논문 참조바람, J. M. Han and R. Ostermeir, "Monetäre Disproportionen...", pp. 79-92.

43) *Izvestiia*, September 26, 1989.

잡재구매력을 루블로 환산하면 약 1,500억 루블로 추정되고 있다. 소련의 공식보도에 의하면 1989년 기준으로 1루블의 실질구매력은 단지 27 코페카의 가치에 해당된다고 한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경제부문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공식적'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한 가격양등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국영소매상점에서 '장사진' 등의 어려움을 감수해야한다.

이러한 현상은 제 2차세계대전 종료 이후 모든 서방국가들에서, 특히 독일에서 나타났으며 또한 한국도 대한민국 수립시기인 1948년을 전후해서 그리고 6.25동란 시기를 전후해서 나타났다. 소련에서는 주로 화폐과잉으로 인한 것에 기인한 반면 독일과 한국에서 나타난 제 2경제는 절대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공통분모는 상품과 화폐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화폐정책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로스만도 제 2경제의 생성원인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첫째, 가격통제, 둘째, 사적 활동의 금지, 셋째, 일정 수요 증가, 넷째, 비적절한 관리하의 사회적 소유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한 제 2경제의 원인에는 조세, 특히 높은 간접세들 회피하기 위해 기업간의 거래를 불법적으로, 예를 들면 톨카치 등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불법제도가 성행한 것을 지적했다.⁴⁵⁾

소련에서 불법거래가 왕성한 이유는 소련체제가 고의적으로 유통업을 경시하는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극복에 중심을 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생산관계도 중요하지만 유통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독일의 역사주의학파가 세계 사회경제 발전을 제 1차산업에서 제 2차산업을 경유하여 제 3차산업으로 이행된다고 예견하고 있는데 소련사회가 제 3차산업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주로 제 2차산업에 총력을 기울인 것은 당연히 역사발전이 역행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소련처럼 세계 땅의 1/6을 지닌 거대한 국가는 상품과 서비스가 풍부히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유통업체제가 정비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지역적·시간적 상품애로가 발생한다.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역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경제개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경제정책의 부재가 제 2경제를 가시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경제개혁을 위해 제도적·법률적 장치를 상당히 고안하면서도, 실제 경제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데까지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므로 경제주체, 즉 기업과 가계가 이행기 동안에 더욱 더 불법거래와 매점매석행위를 함으

44) U. Weißenburger, "Sowjetische Wirtschaftsplanung für 1990: Inflationsbekämpfung ohne klare Konzeption", *DFW-Wochenberichte*, No. 35, 1989), pp. 563-64.

45) G. Grossman, "Notes on the Illegal Private Economy...", pp. 844-55.

로 해서 그 정도는 최고위험수위에까지 도달했다. 왜냐하면 공식 및 비공식 보도를 통해 조만간에 이루어질 화폐개혁, 사유화, 시장경제로의 이행 등과 비경제적 개혁⁴⁶⁾ 등을 경제주체는 예상하여 더욱 불법경제활동을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련에서 제 2경제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중의 하나는 경제주체의 사회도덕과 가치관의 저하 혹은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도덕의 상실은 계속적인 이데올로기의 선전으로 인한 국민의 무감각,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한 다른 세계와의 비교를 통한 좌절감과 글라스노스트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소련경제의 실상을 인식하면서 느끼게 된 허탈감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노멘클라투라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정치지도부에 대한 불신 등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한국속담처럼 모든 경제주체가 부정적 제 2경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V. 제 2경제의 파급효과

1. 자원배분 및 경제성장 효과

제 2경제에 활동하는 경제주체는 원칙적으로 이윤극대화의 계산아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보통 제 2경제의 생산성은 제 1경제의 생산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 2경제의 긍정적 효과는 주로 제 1경제에 노동투입의 극소화, 예를 들면 결근, 지각, 조기퇴근, 근무태만 등을 통해 제 2경제부문으로 노동투입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zero-sum-game)에 따라 제 2경제의 생산성상승은 제 1경제의 생산성하락으로 나타나므로 양부문의 효과 간의 차액에 따라 총체적으로 국민경제를 평가해야 한다. 물론 제로섬 게임이 아닌 제 2경제부문의 효과는 긍정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do-it-yourself 혹은 이웃도와주기 등의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제 1경제에 지장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긍정적 효과를 수반한다. 제 2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제 1경제부문 보다 높으므로 국민들이 소유한 화폐를 환원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제 2경제부문에서는 높은 임금과 보너스가 지급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도움을 준다.⁴⁷⁾ 그러나 대부분의 제 2경제는 제 1경제를 잠먹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련의 제 2경제가 국민경

46) 예를 들면 행정개혁과 예상으로 인해 연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은 그들의 위치에 대한 불안정으로 직접·간접으로 행정활동을 동한시하면서 노후대책에만 부심하여 소련의 행정은 마비되었고 제 2경제는 심화됐다.

47) P. R. Gregory and R. 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p. 363.

제에 미치는 '순효과'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재 상품부족 제거에 기여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킨다.

증가되는 상품부족은 제 2경제에서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 제 1경제에서 노동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 2경제에서의 임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금 제 1경제에 영향력을 미쳐 소련의 기업장들은 종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의 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추가적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상당히 적은 효과이다.⁴⁸⁾ 왜냐하면 단지 병목임금의 상승만 가져오기 때문이다. 소련의 상품가격형성은 주로 국가주도하의 고정된 행정가격이므로 상승된 임금은 주로 국립은행(gosbank), 대부분은 국립은행의 지점을 통해 별로 문제없이 대부받는다. 헝가리 경제학자 코나이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제주체의 예산팽창(Soft Budgets Constraints)'⁴⁹⁾으로 기업이 파산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련의 화폐제도는 실물경제체제의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화폐량의 팽창은 다시금 상품과 화폐의 불균형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 경제주체들은 상당한 화폐를 보유하고 있어 구매력이 증가하지만 상품의 부족으로 상품화폐간의 균형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이러한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주체의 구매력을 잠식시키지만 전통적으로 소련의 제 1경제에서는 고정된 행정가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가격에는 상품서비스시장에서 상품서비스가격, 노동시장에서 임금, 자본시장에서 이자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고정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 과정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또한 희소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해 자원낭비를 초래시킨다. 그러므로 소련 가격과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제 1경제의 배분체계에서 줄서기, 배급제 등에 시달려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 2경제의 배분체계에서는 높은 가격 등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중가격'으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들은 국민복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국민경제적으로는 가격왜곡으로 인해 경제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소련에서 제 2경제의 활동범위는 주로 소비재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재부문의 노동력과 자본력이 소비재부문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후에 다시금 상품생산의 부족을 야기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에 투입되는 상당부분이 제 2경제로 이행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본스토크(stock)의 구조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 소련의 소유권체제와 관련해서 보면 제 2경제의 활동의 대부분은 불법 혹은 준법적이며, 그 자체내의 지하적인 화폐유

48) G. Grossman, "Notes on the Illegal Private Economy...", p. 854.

49) J. Kornai,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klos*, Vol. 39, No. 1, 1986, pp. 3-30.

통을 유발시키고, 또한 사적 기업 혹은 사적 기업활동의 규모는 상당히 왜소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의 장점을 통한 자본축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소득재분배효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평등분배 원칙은 제 2경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능률을 제고시켜 실제적으로 상당한 성별, 산업별 그리고 지역별 소득격차가 존재한다.

제 2경제는 확실히 소득재분배효과를 지니고 있다. 각 경제주체의 분배효과의 위상은 얼마나 많은 시간, 노동,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을 제 2경제에 투입시킬 수 있는 능력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⁵⁰⁾

소득재분배에 대한 경험적 및 계량적 분석은 소련체제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분배평등의 이데올로기와 불충분한 1차통계로 인해 연구가 미미한 영역이다. 또한 소련체제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제 2경제로 인해 공식데이터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왜곡되어 경제정책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약간의 예를 들면, 연금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직업 자격을 갖고 있으나 기업내 재산을 절도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기업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갖고 있으나 비밀 사적 생산과 처분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당과 국가기구에 일하는 자는 정치력을 바탕으로 특권과 '뇌물'을 받을 수 있다. 제 2경제는 노멘클라투라에게 더욱 더 부의 축적 가능성을 높여준다. 상품부족으로 인해 소련에서는 고객이 왕이 아니라 판매자가 큰 힘을 발휘하므로 그들은 유통을 받을 가능성과 그들이 판매하는 물건과 부족한 기타 물건을 교환할 가능성이 많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 2경제는 상당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득을 보는 층은 제 2경제의 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경제력과 정치력을 보유한 자이며 손해를 보는 층은 국가와 여기에 진입할 수 없는 계층일 것이다.

제 2경제를 통한 경제주체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정의 실현에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시키며, 경제주체간의 사회적 합의 혹은 정체성(正體性)을 약화시켜 경제주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경제는 체제초월적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경제체제의 존속과 기능을 도와주는 '경제적 유틸류

50) D. Cassel, "Funktionen der Schattenwirtschaft...", p. 98.

(economic lubricant)'와 '경제적 완충기(economic buffer)' 그리고 '사회적 진정(social molifi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⁵¹⁾

그러나 제 2경제는 불법생산과 거래 등으로 개인의 이득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행해짐으로써 소련을 지탱해주는 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화의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제 2제는 공산당의 지도력과 공산당독재의 합법성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시켜 체제거부적인 성격에서 점점 체제저항적인 성격으로 발전되어 체제파괴적인 것에서 체제전환적인 것으로 발전되게 하는 '기관차'의 역할을 담당했다.

VI. 제 2경제의 방지책과 경제개혁

모든 경제체제에서 제 2경제는 안정촉진제 기능을 갖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제 2경제는 대안이 없는 곳에서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는 반면에, 계획경제체제에서 제 2경제는 '경제메카니즘'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며 또한 물자공급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소련의 제 2경제는 개혁에 저항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제 2경제는 이 체제에서 그러저럭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치개혁을 급속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태와 경제악화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소련의 지도층은 제 2경제의 많은 부분을 합법화 혹은 금지시키고 있다.⁵²⁾

백색시장의 제 2경제의 활동을 고르바초프의 초기단계에는 법적 조치로 강화했다. 예를 들면, 1986년 '불로소득 퇴치에 관한 법률'이 그 대표적 경우이다.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부족을 제거하지 못했으며 또한 법적 조치의 불안정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제 2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1986년 11월 19일에 '사적 영업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러한 제 2경제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예를 들면, 완전 노동자가 아닌 경제주체(연금생활자, 학생)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노동시간 외에 사적 경제활동을 허락했다.⁵³⁾

1988년 5월 26일 '조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부터 주업으로 직접 사적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고 사적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소련 국가통계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1988년에 벌써 조합에 종사하는 사람은 135만 명이며 사

51) D. Cassel, "Funktionen der Schattenwirtschaft...", p. 99.

52) H. G. Gramatzki, "Schattenwirtschaft...", p. 429.

53) C. Schmidt, "Neue Rechtsform privatwirtschaftlicher Erwerbstätigkeit in der USSR", *WGO-Monatshefte für Osteuropäisches Recht*, No. 4, 1988, pp. 217-39.

적 부업에 종사하는 자는 72만 명이다. 그러나 실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압노동을 고려하면 훨씬 높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상품과 서비스는 1988년에 대략 60억 루블을 상회한다고 한다.⁵⁴⁾

이 영역의 재정적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소련에서는 1988년말에 처음으로 77개의 조합은행과 상업은행을 자본금 20억 루블로 설립했다. 1년후 그 수는 3배이상 증가했으며 1990년 9월 기준으로 그 수는 400개를 넘었고, 그들의 총자산은 320억 루블에 해당한다.⁵⁵⁾ 앞으로 그 수와 자본액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그 전까지 소련의 은행제도는 국립은행(gosbank)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일 중앙은행체제를 유지했었다.

소련의 공장과 기업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중간재와 제품을 가능한 한 많이 보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은 계획당국의 목표량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물자와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에 소련의 공장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와 제품은 약 4,700억 루블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매업을 도입했지만 기업들은 원자재와 제품을 판매 혹은 교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과도기적으로 법률위반을 통해 상당한 제 2경제의 기본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⁵⁶⁾

소련사회에서 제 2경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제 2경제의 생성원인은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만성적 부족에서 기인한다. 일부 경제주체는 부족을 제 2경제활동을 통해 해소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기타 경제주체들도 제 2경제에 가담하게 되어 소련사회는 제 2경제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보듯이, 소련사회에서 상품부족과 서비스부족 제거는 모든 경제주체에 유익한 것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경제주체의 에고이즘으로 인해 제 2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증가는 결국 국민경제적으로 만성적 상품부족과 서비스부족을 일으켜 결국 그들 자신도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제 2경제는 미시경제적으로는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지만, 그러나 제 2경제의 빠른 성장은 경제 불안정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질서의 파괴는 물론 도덕성의 실추를 가져온다. 모든 경제체제에서 유동적이고 능률적인 국가활동 여부에 따라 제 2경제는 방지될 수 있으며 기존의 제 2경제

54) "Кооперативы: злободневные вопросы",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1989, no. 12 s. 4.

55) International Monetary Fund/The World Bank/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 Study of the Soviet Economy*, Vol. 2 (Paris 1991), pp. 114-15.

56) N. Schefow, Nikolai, "Schattenwirtschaft...", p. 10.

도 제 1경제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소련의 사회주의경제체제는 '계획도그마'에 의한 정책의 경직성으로 인해 유동적이고 능률적 국가활동을 할 수 없었다. 물론 네프(NEP), 흐루시초프개혁, 코시킨-브레즈네프개혁, 안드로포프개혁이 있었지만 이 경제개혁들은 계획체제를 골격으로 시장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제 2경제의 주요 생성원인인 상품서비스부족을 제거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단지 임시방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소'기능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진지하게 계획과 시장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다. 즉, 제 1경제와 제 2경제의 존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했다. 하지만, 양경제 상호간의 조화보다는 갈등과 반목이 심화됨으로 인해 경제는 피폐화되어 결국 소련멸망의 주원인을 제공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여러 정책이 수미일관적으로 이행되지 못해, '푸라이부르그 학파'의 주장처럼 체제의 비효율을 증가시켰다. 왜냐하면 고르바초프는 한편으로는 그의 저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수차례 걸쳐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혹은 '진정한 레닌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메카니즘을 도입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소련경제는 정확히 표현하면 공식경제인 제 1경제는 상당한 둔화와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제 2경제는 상당한 호황을 이루고 있다.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페레스트로이카 경제개혁 과정에서 소련사회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해왔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권을 인정한 사적 시장의 출현 혹은 투기활동 등을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도 존재하는 체제고유적인 요소로 점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련의 실체가 소멸된 이후 이러한 자본주의적 요소를 함유한 제 2경제를 '자본주의 학교'로서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와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제 2경제의 활동을 제 1경제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구소련에서 시장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제 2경제의 하위개념인 지하경제 혹은 불법경제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구소련의 15개 연방공화국의 모든 국가들은 사회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어 시장메카니즘의 도입으로 단시간에 경제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앙계획경제체제라는 어머니 품 안에서 시장경제의 태아가 잉태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몸이 너무나 병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태아의 발육장애는 물론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⁵⁷⁾

57) G. Soros, "Can the Soviet Economy Survive?",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7, 1989.

VII. 맺 음 말

제 2경제 현상은 체제초월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제 2경제 형태와 규모는 광범위하며 매우 포괄적이다. 제 2경제의 정의와 개념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소련경제를 분석하기 위해 체제론적 정의로 전개했다. 그러므로 실정법에 위배되는 불법경제 혹은 지하경제의 개념은 제 2경제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했다.

제 2경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소련경제의 전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적법성의 정도에 따라 수많은 '색깔 시장'을 살펴보았다. 모든 제 2경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제 2경제는 제 1경제와 보완과 공생 그리고 기생관계로 얽혀있다. 제 2경제의 추정치는 각 정의와 연구자의 목적 여하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제 2경제의 생성원인은 주로 체제정책적 원인으로 계획체제의 불완전성과 불합리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계획당국과 개별 경제주체 간의 자원배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다. 그리고, 경제과정정책의 원인으로서는 소련에서 국민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상품·서비스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경제구조정책의 원인으로서는 중공업의 육성정책과 제 3차산업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간, 산업간 상품·서비스부족이 주원인이다. 기타 비경제적 요인으로 경제개혁의 수미일관성의 결여와 국민의 도덕성 상실을 들 수 있다.

제 2경제의 파급효과는 자원배분에서 상당한 자원낭비와 제 2경제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제 1경제와 제 2경제의 갈등적 요소의 확대로 인해 국민경제의 정상적 성장이 저해받고 있다. 물론 제 2경제를 통해 상품·서비스부족의 제거와 화폐과잉을 제거하는 순기능은 있지만 국민경제상으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 제 2경제는 소득재분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제 2경제의 방지책으로는 제 2경제를 제 1경제로 편입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보듯이 제 2경제는 소련체제의 붕괴와 체제전환을 이끌어낸 '기관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구소련의 독립국가연합과 각 독립국가연합국가, 그루지야 그리고 발트 3국에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에서 새로운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한 제 2경제가 존재하리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시장체제의 지식(know-how)과 공정한 시장규칙(game-rule)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체제이행기에서는 항상 무질서와 혼란이 수반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Die "zweite Wirtschaft" in der Sowjetunion

Han, Jong-Man

Die zweite Wirtschaft kommt sowohl im marktwirtschaftlichen System als auch im planwirtschaftlichen System zur Erscheinung. Unter zweiter Wirtschaft (auch "unoffizieller", Schatten-, Konter-, Untergrund-, oder Parallelwirtschaft usw.) wird eine breite Palette von Aktivitäten verstanden. Diese wirtschaftlichen Aktivitäten müssen nach Grossman im engeren Sinne einer der breiten folgende Bedingungen genügen: Sie dienen der persönlichen Bereicherung oder Sie verstoßen in wesentlicher Beziehung bewußt gegen geltende Gesetze. Nach unserer Definition der zweiten Wirtschaft kann darüber hinaus eine systembedingte Definition im weitesten Sinne halblegale und sogar legale Aktivitäten mitberücksichtigen. Inhalt und Struktur der zweiten Wirtschaft sind abhängig vom "ersten" Wirtschaftssystem d.h. von dessen Versorgungs-, Allokations- und Motivationsmängeln. Diese zweiten wirtschaftlichen Aktivitäten haben zu einem eigenen Geldkreislauf geführt, der sich den Planungsinstanzen und der Planung entzieht (Planabweichung,

Planlücke etc.).

Die zweite Wirtschaft wurde und wird hauptsächlich von ständig mangelnden Waren und Dienstleistungen und selbst Unfunktionsfähigkeit des planwirtschaftlichen Systems verursacht. Die zweitwirtschaftlichen Aktivitäten stehen außer Kontrolle der zentralen Planungsinstanzen und führen zweierlei Koordinationssystemen, die Effizienz-, Allokations-, Wachstums- und Wohlfahrtsverlust mit sich bringen. Der informelle Allokationsmechanismus führt zu einer sekundären Einkommensverteilung innerhalb der Bevölkerung und der Region und somit zu einem zweistufigen Preissystem. Trotzdem spielte die zweite Wirtschaft in der sowjetischen Zentralverwaltungswirtschaft eine Rolle von "economic lubricant", "economic buffer", and "social molifier." Das hohe Wachstum der zweiten Wirtschaft wurde als "Lokomotive" zu Zerfall der Sowjetunion beigetragen.

Die zweite Wirtschaft wurde und wird durch Wirtschaftsreformen in erste Wirtschaft einbezogen. Seit dem Zerfall der Sowjetunion und Entstehung der GUS (Gemeinschaft der Unabhängigen Staaten) wird die zweite Wirtschaft im zunehmenden Tempo liberalisiert. Trotz der offiziellen wirtschaftlichen Einbeziehung der zweiten Wirtschaft wird zu Unklarheit, Ungewißheit und Risiko der GUS-Wirtschaft. Denn in der ehemaligen Sowjetunion gibt es nur mangelnde und/oder ungenügende "know-how" über die marktwirtschaftlichen Infrastrukturen.